



참의료를 실천하는 맑고 따뜻한 지성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의료진료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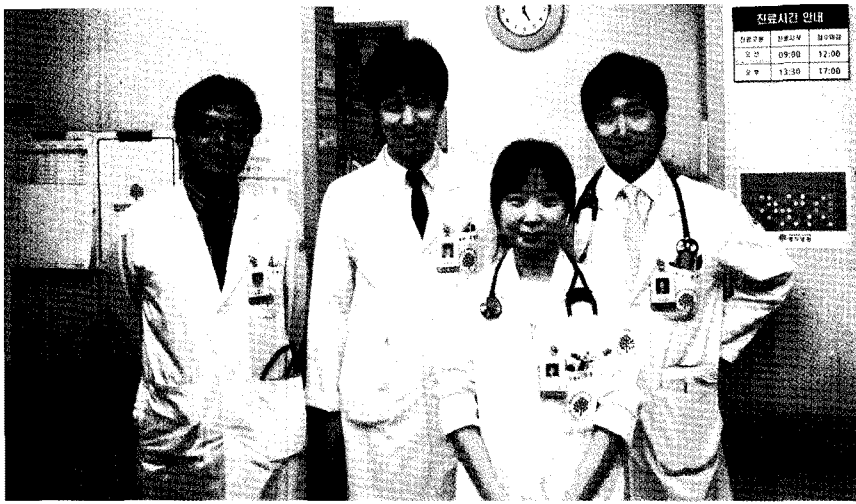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신을 따뜻하고 진심어린 눈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다. 맑은 심장을 가진 청년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탄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참의료진료단이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무료진료를 전국으로 확대해, 온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을 준비를 마쳤다. 에디터 김은섭 사진 TUBE STUDIO

매주 일요일,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에서 봉사
회색빛 도시, 바쁜 현대인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이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날로 각박해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는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간다. 타인을 위해 조건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그나마 TV나 영화 속에서 이따금씩 만날 수 있지만, 그건 남의 얘기일 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대부분 건조한 일상에 익숙해져버린다.

혹시 이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넓고 따뜻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고, 아직 내 안에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배려'와 '이타심'을 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구로동을 찾자. 그곳에 가면 매주 일요일, 그렇게 우리가 목말라하던 잔잔한 감동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참의료진료단(이하 참진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현장이다. 참진단은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행동하는 양심'들이 모여 만든 의료봉사단체다. 대한전공

의협의회 산하 참진단은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경기지역 7개 병원의 젊은 현역의사들을 주축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참의료 진료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참진단이 지난 2004년에 개원한 구로동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에서 그해 말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50만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무료의료봉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고민을 거듭한 참진단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노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발견했고, 지난 2000년부터 의료 낙후지역과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 봉사를 진행하다가, 적십자병원을 거쳐 200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을 중심으로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돌아가면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의료 봉사라고 해서 일반 진료 환경과 다를 것은 없다. 병력청취 후 신체검진을 통한 진단과 함께 약물을 처방하고 있으며, 접수나 약



진료과목	진료시간	진료과목
내과	09:00 ~ 12:00	외과
소아	13:30 ~ 17:00	영상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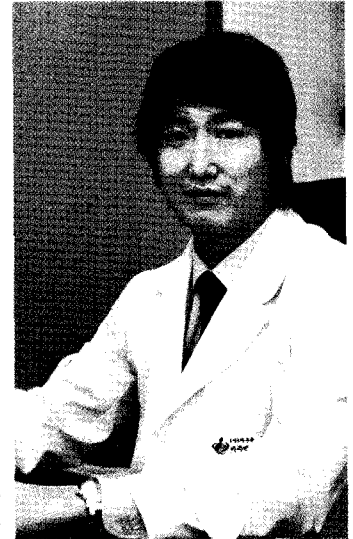
물 포장 등은 평화사랑나눔 봉사단의 봉사단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은 참진단 외에도 참의료실현 한의사회와 고대구로병원 등 여러 봉사단이 한데 모여 진료소를 이끌어가고 있다.

가슴 훈훈한 참의료,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참진단이 생각하는 '참의료'는 크게 두가지다. 의료를 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그것이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루어지는 봉사단체인 만큼, 각자 바쁘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을 반납한 채 진정한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참진단에게 의료봉사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느덧 삶의 일부가 돼 버렸다. 그야말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청년의 사들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무료진료를 기다리는 무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에, 그들은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달게 짊어진 것이다.

참의료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참진단의 아름다운 진료봉사가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진단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 뜻이 있는 전국의 전공의들을 참진단원으로 모집한 후, 향후 지역별 무료진료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렇게 각 지역에서 쌓인 역량을 토대로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와 의료난후 지역인 섬 지역을 찾아 무료진료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그렇게 각 지역의 사례를 온라인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참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참진단의 최종 목표다. 생각만으로도 몽클하지 않은가. 그때뜻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가 될 날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그날이 두근두근 기다려진다. 6

interview



안상준
참의료진료단 단장

무료진료요? 등산 후 맥주 한 잔처럼 짜릿합니다!

참진단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참진단은 역사가 길어 체계도 잘 잡혀 있고 참여율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참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전협 13기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참진단의 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봉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역적 단위를 구성해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결집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의료봉사활동, 어떤 매력이 있나요?

가끔 일과에 지치면 쉬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막상 진료를 하다 보면 시간도 훌쩍 가고, 어두웠던 표정의 환자들이 감사하며 웃으면서 문을 나서는 걸 보면 정말 신이 납니다. 마치 등산을 다녀와서 샤워 후에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느낌이랄까요. 봉사를 마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즐거분하고 또 묘하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의학발전을 위해 의학연구에 힘쓰며 좋은 논문을 써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제가 가진 의학의 힘을 좋은 의도로 사용하여 진료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 중 가장 고귀한 것이 무료진료봉사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밝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